

[들어가기]

오늘은 전도서 4장의 마지막 시간으로 본문에서는 총 세 가지의 내용을 이야기 합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이 세 가지를 종합하여 보면 전도서 4장의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 하고자 했는지 그 세 가지를 지금부터 살펴 본 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러보기]

지혜로운 마음, 요셉, 다윗,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첫 번째로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13절에 보면 두 종류의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면서 지혜로운 젊은이와 높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으로 비교하며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혜가 아닙니다. **왕상 3:9-12절**에 보면 일천번제 후 솔로몬이 구한 것이 바로 지혜인데 이 지혜는 지혜로운 마음으로서 듣는 마음이라고 설명 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상 3장에서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지혜는 듣는 마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요셉을 언급합니다. 14절에 보면 가난하게 태어나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와 왕이 된 사람으로 요셉을 묘사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왕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애굽에 관한 모든 일을 통치함으로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요셉의 통치로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즉, 셈족인 요셉과는 다른 함족의 왕이 새로 일어났습니다. 이 왕은 요셉이 펼쳤던 모든 정책을 반대하고 모든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에 대한 삼대 악정을 펼치기까지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 절대적이고 대표적인 정권의 뜨고 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커다란 언약의 줄기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을 통해 솔로몬은 다윗을 소개함

[전도서 4:13-16]

13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높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14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15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16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서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선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인생이 첫 절에 소개되고 있다. 한 사람은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왕이지만(여기에서 왕은 나라의 왕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보면 가난의 반대 개념으로 등장한다) "모든 것을 갖춘 자". 높고 둔하며 간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등장한다.

먼저 13절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솔로몬은 흔히 알 듯이 지혜의 왕으로 많이 각인 되어있다.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한다.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고 기록이 되어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혜는 구한 것이 맞는데 그냥 '지혜'가 아니라 '지혜의 마음'을 구했다. 그냥 지혜와 지혜의 마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히브리말로 지혜의 마음이란 '잘 듣는 마음'을 뜻한다. 솔로몬은 창기들의 다들까지도 마음으로부터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었기 때문에 명 재판관으로 알려지게 된다.

우리가 지난 주 VICTORY라는 이니셜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나누었지만 여기서 "C"가 나타내는 communication이 무엇인가하면 "소통"이다. 소통은 일단 듣는 것으로 시작된다. 인간은 사람과 사람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이 참 중요하다. 따라서 항상 답답하고 삶이 형클어져 있을 때 여지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가만히 옆드려만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닫혔던 귀와 눈을 터치만 하시면 그때부터 형클어져있던 삶의 길이 모이게 시작한다. 이것을 경험해야한다. 이것이 바로 리더들이 붙잡아야하는 소통의 원리이다.

솔로몬은 그런 은혜를 입고 국정을 다스릴 수 있었다. 문제는 사람은 자리가 올라가고 책임이 많아질수록 자꾸 무언가 가르치려고 한다. 자기의 주관적인 세계에 갇혀서 자꾸 가르치려한다. 그러다보면 잘 듣지 못한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두 가지 경향이 있다. 세상에 섞이거나 자기들끼리만의 리그에 갇혀서 게토(ghetto, 과거의 유대인 거주 지역)화 되거나 한다. 여러분들은 어떤가. 여기에 모델로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 다니엘이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던져졌지만 거기에 게토화도 되지 않았고 섞이지도 않았다. 여러분은 캠퍼스나 직장에서 게토화 되어서도 안 되고 섞여서도 안 된다. 그 경계선에서 산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 어찌되었던 가능하면 많이 들어라.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부분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한다면, 나이가 40내지는 50이 되어 가면 피터팬 족속들이 생겨난다. 피터팬 족속이란, 자신의 나이는 생각하지 않고 20대30대가 하는 일을 다 해보고 싶은 욕구가 들어온다. 이것을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한다. 항상 이상적인 것만 생각한다. 바로 이런 것이 생겨나는 이유가 남의 이야기는 잘 듣지 않을 때, 자기 세계에 갇혀있을 때 생겨난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킨다. 너무 나이든 사람들이 젊은 척하는 것이 꼴볼견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이에 맞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것이 필요하다.

우리 삼일교회는 그런 면에서 균형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큰 부흥이 있기 까지 기성세대들의 양보, 수고, 헌신 등이 있었다. 그런 부분을 교회생활을 하면서 인정하여야 한다. 교회에서 아버지 세대들을 보게 되면 알던 모르던 인사를 하면 좋겠다. 이것이 멋진 것이다.

요셉과 다윗을 소개하는데 우선 14절을 보자.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 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여기 요셉을 왜 이렇게 소개했을까? 여기에는 구속사적인 이유가 있다.

니다. 다윗은 사울 다음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악신이 든 사울에 의해 엄청난 박해와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의 이런 박해와 공격은 사울 자신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고 다윗을 왕좌에 빨리 올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힘써 꾀를 내고 모색을 하고 음모를 꾸며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솔로몬은 왜 전도서를 통해 이 세 가지를 본문에서 말하고자 했는지 그 결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을 알기 위해서는 모세의 글인 신명기 18장 15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지니라”

모세는 자신의 글을 통해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예언은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성취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모세가 예언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모세 예언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결국 솔로몬은 역사의 많은 사건들 속에 있었던 요셉과 다윗을 통해 모세가 예언한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왜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했을까요? 본문 16절에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위로가 안 된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뜨고 지는 권력이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과 근본적인 위로를 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선한 왕이나 악한 왕이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자신이 왕인데도 백성들에게 온전한 왕이 될 수가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온전한 왕은 예수님뿐이며 그 분만이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솔로몬은 본문에서 소개하는**

_우선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다. 여기에서 왕은 히브리관점에서 왕이라는 표현이다. 사실 왕이 아니라 총리였다. 그러나 히브리사람들의 입장에서 왕이라고 해도 틀린 표현이 아니다. 바로가 직접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다.”라고 말을 한 것은 요셉이 실질적인 왕이라는 표현이다. 이것을 히브리 사람도 알았고, 그 시대 사람들도 알았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요셉의 총리시절에 왕은 요셉과 혈통이 같은 셈족의 왕이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지만 총리로 세울 수 있는 정서적 배경이 있었을 것이다.

[출애굽기 1장 6절-8절]

67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77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87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_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기록이 없고 전혀 모르겠다는 개념의 알지 못하는 왕이 아니라, 요셉의 정책이나 정치적 방향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의 개념을 가진 함족 출신의 왕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왕은 히브리 인들에 대한 세 가지 학정을 펼친다.

_바로 강제 노동 정책, 남아 투감 정책(남아를 낳으면 강물에 던짐) 그리고 산파 정책(히브리 남아를 낳으면 산파를 통해 죽이도록 명령함) 이 그것이다. 이러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깊은 고통 속에 부르짖게 된다. 그런데 그 새 왕도 언젠가는 없어지고 그 세월은 지나갈 것이다. 이러한 커다란 고난의 역사는 이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고된 이야기였다. 창세기 15장 13절을 찾아보자.

[창세기 15장 13절]

137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_이것이 이미 아브라함 때 정권의 부침 곧 하나님 섭리 속에 계획했던 일들이었다. 이것은 역사가 우연히 뜨고 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에 그 역사의 처음과 끝이 붙잡혀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_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실례로 다윗 왕이 등장한다. 전도서 4장 15절을 보자. 왕의 다음 자리에 있던 사람은 누구인가? 다윗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어느 날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랫소리가 자기 귀에 들렸다. 그때부터 사울은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새 마음이 좁은 다윗에게 돌아갔고 그날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헛된 에너지를 쏟으면서 다닌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일찍 역사에서 사라지게 만든다. 사울은 다윗이 왕에 오르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데 그치게 된다.

_이 모든 것이 인간의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요셉이 사라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이 학대의 결과로 모세는 강물에 던져진다. 그런데 강물에 던져진 이유로 모세는 궁궐에 들어가게 되며,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되고 애굽의 모든 문물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모세는 수많은 곡절을 겪은 끝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낸다. 이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신명기 18장 15절]

157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_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모세가 가졌던 그림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메시지가 있었다.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을 모세의 인격 속에 삶속에 담고 있었다. 그래서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올 것이다. 이것을 율법에 담아서 후대들에게 붙잡을 것을 계속 말한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에서 성취된다.

[요한복음 6장 14절]

147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_정리하면 솔로몬이 결국은 전도서 4장을 통해서 이 땅에는 기쁨도 없고 이 땅의 왕들은 백성들에게 온전한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 결국은 왕 중의 왕인 참된 왕인 예수 그리스도 만이 참된 구원자임을 솔로몬이 전도서 4장에서 드러내고자 했던 중요한 메시지이다.

것입니다.

[나오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

결국 전도서 4장 전체의 주제는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매우 이성적이며 지혜로 와야 됨을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뜨고 지는 권력의 무상함처럼 답답하고 답이 안 보이며 암울할지라도 오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분만이 우리 인류가 품어야 할 소망이며 참된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참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복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복된 마음은 이지적인 깨달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적인 복으로서 은혜입니다. 우리들은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함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적용하기]

- 1.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이며 그 두 사람의 인생을 자신의 삶과 비교 해 봅시다.
- 2.모세는 신명기 18장에서 무엇을 예언했나요? 요6:14절과 함께 생각 해 봅시다.
- 3.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들이 만난 사람 중에는 요셉과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며 바로와 같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대할 때 나는 전도서 말씀에 비추어 어떤 모습과 마음으로 생활했나요?
- 4.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한 자신만의 3가지 실천사항을 말해봅시다.

찬양 :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기도 : 예수님만이 나의 해결자 이심을 고백하며 자신의 문제 해결 위해, 교회의 행사들을 위해(예람제, 새내기 캠프, 위임식)

결국 우리가 이 땅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오랜 역사를 넘고 넘어서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것처럼 성취될 것이고, 우리도 이 환란 많은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이라는 현실을 버티고 견디고 감당해야 한다는 소망의 메시지와 소망의 결론으로 그리스도만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바라봐야 하는 마지막 소망이라고 결론을 맺어야 한다.

[전도서 4장 1절]

17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 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도서의 전체주제는 늘 해 아래에서 시작이 되었다. “해”라는 말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우주의 중심이었다. “이 세상에는 참된 위로자가 없구나”라는 허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고 들어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인가? 이 질문으로 시작된 것이 다시 오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임.

스토아학파가 끼친 해악은 신약에 나오는 영지주의자. 영지주의자는 지식을 숭상하는 종파. 이 종파는 두 극단으로 나누어진다. 지식을 숭상함으로써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설명한 사람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깨달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가 행동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행위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은총의 구원을 얻은 자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당연히 그런 순종과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으며 그 사랑하는 이의 눈과 마음에 맞도록 순종하며 지킬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것임.

[적용]

적용 3.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이 아무리 허무이고 모순이고 불확실하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경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정말 적용해야 할 것은 환경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이다. 결국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적용을 이렇게 하라. 그럴수록 여호와를 힘써 아는 자리로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리로 들어가야 한다.

적용 4.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에 머무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전파되는 예배의 현장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는 안 되고 항상 최고를 드려야 한다. 항상 올인을 해야 하는 것이다. 100%충성과 헌신을 해야 한다. 이것 외에는 없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최고의 인생을 드리는 것은 젊을 때 드리는 것이다.

[결론]

1.지혜의 마음은 잘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명석한 두뇌가 아닙니다.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권력과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자신 외의 다른 존재의 말을 듣는 것이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참 지혜를 소유하려면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2.역사의 흐름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역전과 다윗의 삶의 반전도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과정들은 모두 성경 속에 예언된 일이며 하나님의 손의 경륜과 섭리에 의해 이루어져 갔습니다. 역사의 흐름은 한 인생에게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3.하나님의 뜻을 듣고 인생을 주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역사가 인생과 나라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손에 있다는 진리를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귀와 마음을 기울입니다. 주님의 손위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 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삶입니다.